“콜록콜록…” 전남광주서도 초겨울 독감주의보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 2주 연속 증가
지역 아동병원·이비인후과 인산인해
큰 기온변화에 마스크 끼고 기침 연발
“재감염 가능성 높아 예방접종 필수”



9일 오전 9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동병원은 감기 증세가 있는 어린 환자들과 동행한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형우 기자

“으슬으슬 춥더니, 결국 감기가 왔네요.”

최근 입동(立冬)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병·의원에도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9시께 남구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 접수를 시작하자 마자 마스크를 착용한 20여명의 환자들이 잇따라 들어왔으며 대기실 의자 곳곳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금세 채워졌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환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 순서를 기다리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시각 북구의 한 아동병원 내부도 내원객들로 북적였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보호자들이 접수대 앞을 오갔고, 대기실 곳곳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은 연신 기침을 했고, 부모가 텀블러에서 따라 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물을 후후 불고 마시며 목을 축이기도 했다.

이날 이비인후과를 찾은 봉선동 주민 박모(60대·여)씨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고 기침도 나는데, 독감까지 유행한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며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는 편인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옮길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네 살 손녀와 함께 북구 아동병원을 찾은 박규만(67)씨도 “아이가 콧물도 나고 기침을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독감이나 큰 병은 아니라고 해 안심했다”며 “감기가 유행할 때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예방접종도 미리 챙긴다.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를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22.8명으로 전주 19.2명보다 3.6명 늘었다. 42주차 17.7명 이후 2주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사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12세 1천명당 비율은 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13-18세 37.4명, 1-6세 33.1명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역시 44주차 461명으로 전주 389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4명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미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른 종류의 인플루엔자에 또 감염될 수 있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4세(2012년 1월1일-2026년 8월31일 출생),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서형우 기자

“나주 Y중 학폭 원인은 파행적 입시경쟁 교육”

“기숙사 편법 운영 등 비교육적 실태”
교육단체, 특별감사·고입 평준화 촉구
교육청, 기숙사 퇴소 조치·감사 방침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최근 발생한 나주 Y중학교 학교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파행적인 입시경쟁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극단적인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은 학교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과 비교육적 행위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중학교 단계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Y중학교는 교육청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4개월간 폭력이 지속되는 온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Y중학교가 교과수업 외 방과후 프로그램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입시 위주 과목으로만 채운 데다, 석식 이후에도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9시까지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Y중학교는 신입생 반 배치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정기고사 성적 우수자에게도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적 가치를 망각한 줄세우기식 문화는 학생 간 서열화와 우열 의식을 부추기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Y중학교는 매년 1학기 중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해 자유학기제(1학기 지필고사 금지) 도입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입시경쟁 구조와 이를 관리 수단으로 삼은 기숙사가 Y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 특별감사와 나주지역 고입 전면 평준화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교육청은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Y중학교 학생 8명에 대해 전원 퇴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10일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서구 주민배심원단 민선9기 공약 검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민선9기 구청장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검증을 거친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서구청 들불홀에서 32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첫 회의를 열고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배심원단 모집에는 주민 225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32명이 최종 선정돼 약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구는 민선8기 당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했으나, 민선9기에는 실천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상무로 자율상권과 골목형상점가를 연결하는 상생벨트 고도화, 스마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능형 도시 안전망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등을 포함한 7대 분야 26개 공약과 48개 이행사업을 확정했다. /이연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7:02 해짐 17:31 달뜸 07:55 달짐 17:44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3/15	장성	맑음	1/14
목포	맑음	5/13	보성	맑음	2/15
여수	맑음	7/17	함평	맑음	2/14
나주	맑음	2/15	순천	맑음	3/17
완도	맑음	5/15	영광	맑음	2/13
구례	맑음	1/16	진도	맑음	5/13
강진	맑음	3/15	흑산도	맑음	11/15
해남	맑음	3/15	고흥	맑음	3/17
광양	맑음	5/18	담양	맑음	1/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1.0-2.5	0.5-1.0
	먼바다(북)	1.5-3.5	1.0-2.0
	먼바다(남)	1.5-3.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동)	1.5-3.5	1.5-3.0
	먼바다(서)	1.5-3.5	1.0-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16	07:33	여수	09:35	02:53	녹동	10:17	03:51
	14:59	20:11		21:27	15:36		22:04	16:45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60 감기 조심해요
세 차 50 내부정돈 좋아요
빨 래 50 실내건조 좋아요
운 동 50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11일(수)	12일(목)	13일(금)
(3/18) 맑음	(4/17) 구름조금	(7/19) 맑음
14일(토)	15일(일)	16일(월)
(10/16) 구름 비	(14/18) 구름조금	(9/16)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